탈레반 수감자 '라마단 특사' 약속?

■인질석방 '이면합의' 있나

몸값 지불 가능성도

국제적십자사(아랍명·적신월사) 차량이 29일 탈레반에 의해 석방된 한국인 여성 인질 3명을 태운 채 이동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이 41일만에 한국인 인질 19명을 전원 석방키로 합의하면서 내건 석방조건은 5개항에 달하지만 그 외에 '이면 합의' 조건이 있었는지가 또 다른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로선 문서화된 합의는 아니지만 구두로 탈레반이 내세운 인질석방 조건은 ▲아프간 파견 한국군의 연내 전원철수 ▲아프간에서 체류중인 한국 민간인의 8월내 전원철수 ▲한국 기독교 선교단의 아프간 입국 금지 ▲한국 인질 출국 때까지 공격 중단 ▲탈레반 죄수 석방 요구 포기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달 이미 한국군 연내 철군을 천명했고 새 여권법에 따라 아프간 여행이 금지된 상태며 기독교단체 내부에서조차 무리한 해외선교 방식에 대해 이견이 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두 합의사항들이 인질석방 협상의 결정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약한 측면이 있다.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인질 살해까지 서슴지 않는 탈레반이 전원 석방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배경에는 협상 관례상 공개되지 않는 '이면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린다.

우선 추정해볼 수 있는 이면 합의 사항으로 이슬람 라마단(금식월) 특사로 장기복역중인 탈레반 수감자 일부를 석방해줄 가능성을 꼽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탈레반측이 요구하는 수감자를 풀어줄 수 없지만 이슬람 최대명절인 라마단을 앞두고 통상 시행되는 '특사 형식'을 빌어 석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아프간과 미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초래할 '맞교환'이라는 형식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아프간 정부를 설득하는데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하다.

탈레반측도 이 방안에 대해 "라마단 특사로 아프간 정부가 탈레반 수감자를 석방한다면 이는 탈레반의 뜻을 존중하는 것으로 좋은 조치"라고 언급한 적이 있다.

아울러 인질 석방을 조건으로 몸값을 지급했을 가능성도 상정해봐야 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의 경우 탈레반이 인질 1인당 10만 달러의 몸값을 요구한다고 지난 26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탈레반이 발표한 석방 합의 조건에는 한국 정부가 인질석방 대가로 탈레반에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돼있다.

이밖에 협상 과정에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한 아프간 정부에 대해 공적지원자금(ODA) 약속 등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탈레반 "미군 군사작전해도 한국 인질은 석방"

탈레반 협상 대표로 참가한 물라 나스룰라는 29일 한국인 인질 을 모두 석방한 뒤에 아프간 정부군과 미군 주도 서방 동맹군이 대대적인 탈레반 토벌작전을 벌일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고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인질은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스룰라는 이날 오전(현지시간) 연합뉴스와 한 간접통화에서 "인질이 모두 석방되고 나면 아프간 군이 미군과 함께 대규모 공세를 펼 가능성이 높으며 충분히 예상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한국인 인질 석방과는 무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한국인 인질 몇명을 방패막이로 계속 붙잡고 있더라도 아프간 정부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미 가즈니주에 대한 연합군의 대대적 공격이 시작된 점도 이를 방증한다" 고 덧붙였다.

그간 일각에선 탈레반이 인질 석방 뒤 대규모 소탕작전을 우려해 인질 수 명을 장기간 억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나스랄라는 그러나 "우리는 무슬림이며 지하드(이슬람을 지키는 성전)를 수행하는 무자헤딘(전사)으로서 한국인 인질 석방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내달 동맹국에 공식 통보…연내 완료

■ 속도내는 軍 아프간 철군

군당국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에 납치·억류돼 있던 한국인 인질 19명의 석방조건 중 하나인 아프간 주둔 동의.다산부대의 연내 철군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 다음달부터 철군 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동의·다산부대의 연말 철군은 인질 석방조건으로 합의되기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지만 정부는 합의사항 이행 의지를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철군계획 준비 작업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29일 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서류상의 계획에 머물러 있는 철군준비 작업은 다음 달 초부터 구체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현재 아프간에는 44개국 4만4천여명의 동맹군들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이끄는 국제안보지원군(ISAF)의 지휘를 받고 있다. 동의·다산부대의 장비는 11월부터 철수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카불 북방 80km에 있는 미군 최대기지인 바그람 기지에 주둔하고 있는 동의·다산부대원 210여명은 기지 인근 공항에서 미군 C-17 수송기를 이용해 키르기스스탄의 마나스기지로 이동한 뒤 전세기편으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아프간에서 활동 중인 비정부기구(NGO) 요원들이 안전하게 철수한 다음 병력을 철수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병력은 12월 중순 이전에 철수할 것으로 보이며 동맹국과 협조절차를 진행시킬 행정요원들이 뒤이어 아프간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동의·다산부대 철수와 무관하게 미국이 요청하고 있는 NGO 등의 지방재건활동 참여 문제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NGO 요원들의 연내 철수도 인질석방 조건이었지만 이번 인질석방 합의과정에서 미측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두바이 이송뒤 민항기편으로 순차 귀국

■석방 인질 언제 어떻게 오나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무장세력에 억류돼 곧 풀려날 예정인 한국인 인질들은 앞서 석방된 여성 2명이 인도 델리를 거쳤던 것과는 달리 아랍 에미리트의 두바이를 경유해 순차적으로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질 19명은 지난 13일 석방된 김경자(37), 김지나(32)씨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기지와 카불, 인도 델리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귀환할 것과는 달리 중간 경유지로 두바이를 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되는 인질들은 먼저 아프간군·경찰의 호송을 받아 억류됐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즈니시의 미군 지역재건팀(PRT)으로 이송된다. PRT에는 미군의 대대급 부대가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미군부대에서 한국군 및 미군 의료진들로부터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휴식을 취하게 된다.

미군부대에서 건강검진과 치료를 받은 한국인들은 미군이 제공한 헬기를 타고 약 250km 떨어진 카불 북부지역의 바그람 기지로 이송돼 기지 내에 있는 동의부대에서 본격적인 정밀진료를 받게 된다.

인질 19명은 바그람 기지 인근 공항에서 작전용 헬기와 의료 헬기를 타고 50km 떨어진 카불로 이동한 다음 미군 수송기로 두바이 또는 인도 델리로 옮겨져 민항기를 이용,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바이=연합뉴스